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오 16, 13- 19 (2025/6/2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 주일)

오늘 교회의 커다란 두 기둥,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입니다. 다른 많은 성인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특별히 이 두 성인은 누구보다도 큰 열성을 보여주셨던 분들이시지요. 이분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가 지탱되고 발전해 나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담긴 베드로의 마음은 참된 진실이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깨달음에 뜨거운 감정이 북받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박해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뒤, 완전히 180도 바뀌어 아주 열성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 모두 자신의 온몸을 바치며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박해하였지만, 그들은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직면하고 자신의 흠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자 노력하였으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분들의 신앙과 열성을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열정 어린 사랑을 봉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2) 얼마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뭔지요?